

2021년 설날감사예배

설날



사람이 교회되는
원주함께하는교회

원주시 세계로 1 ☎ 033) 744-3311
wonjufellowshipchurch.org

온가족이 함께 드리는
설날감사예배

- 목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성경봉독 시편 37:1-6



- 1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 2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 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 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 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말씀선포 **올해는 이렇게 삽시다**

떡담 다같이 *올해의 자기 소망을 나누고, 다른 가족의 소망을 축복합니다.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3절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8장 |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 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3.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430장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3절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후렴]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하는 대로 주와같이 가겠네

1. 올해는 불평하지 맙시다 (1-3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버리라, 낮아지라고 하시지만 세상은 채워라, 소유해라, 높아지라 하며 그것이 성공이라고 인정하고 치켜 세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약한 자를 억누르는 자가 승승장구하고, 정의에 눈 감은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좋은 집에서 잘 사는 것을 볼 때 불평이 생깁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베어지고 얼마 못가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올해는 기뻐합시다 (4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삶이 기쁘지 않았던 것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기쁨 대신 불평, 원망, 걱정이 있었던 것은 말씀 따라 살려는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오히려 말씀 없이 사는 악인이 행통하고 복 받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절에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해는 기뻐합시다.

3. 올해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5절)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깁니다. 올해는 맡깁시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전문가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아 피곤한 베드로는 고기잡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목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에 순종했습니다. 목수가 어부한테 고기잡이를 가르치려 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면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목수이기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올해는 그분께 맡깁시다.

(설교 후에는 가족 모두가 올해의 자기 소망을 나누고, 다른 가족의 소망을 축복합니다.)